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소 연

2019년 8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현 승 환

김 소 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김소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인)
위 원	강 문 증	(인)
위 원	현 승 환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A Study on Folktale Education
for Cultivating Learners' Character
- Focusing on the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s

Kim, So-yeon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yun, Seung-hwan,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으로

김 소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은 청소년기 학습자이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기 적절한 시기이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과 수업 중 설화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으로 한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화의 문학적 요소와 인성 함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어과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인성 함양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후 국어과 수업 중 어떤 영역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교과서에는 설화가 다소 적게 수록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설화가 교육 제재로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성 측면에서 설화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인성적 의미를 중시한 설화가 교과서에 실린다면,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교육 제재로 선정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다양한 인성 교육적 가치를 논하였다. 특히 이 설화를 ‘신화형·전설형·민담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이 갖는 인성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인성은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습 내용은 설화 교육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활동지는 학습자가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발견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인성 함양의 제재로서 설화가 갖는 효용 가치를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될 구체적인 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미흡하지만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어 수업 현장에서 설화가 교육 제재로 많이 제공되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 인성 함양, 설화 교육,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설화와 인성 함양의
관계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5
II.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의 가능성	7
1. 설화와 인성 함양의 관계	7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인성 함양 요소	10
3. 2015 현행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및 개선 방향	16
III.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	21
1. 서사적 구조와 의미	21
2.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	26
3.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	33
IV. 인성 함양 측면 설화 교육 방안	43
1.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학습 내용	43
2.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의 실제	50
V.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2

<표> 목 차

<표 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11
<표 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13
<표 3> 일반 선택과목 ‘문학’ 중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14
<표 4> 진로 선택과목 ‘고전 읽기’ 중 ‘고전과 삶’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15
<표 5>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17
<표 6>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선택과목 문학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	18
<표 7> 민담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개인적 차원의 인성 덕목	32
<표 8> 신화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37
<표 9> 전설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은 ‘바르고 건전한 내면을 가진 개인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다.¹⁾ 즉, 인성은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간적 성질’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²⁾을 가정에서 행하였으나 최근에는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의 인성 교육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인성 함양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³⁾ 하지만 교육 목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⁴⁾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 인성 함양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주로 윤리 교과에서 행하였다. 이는 인성 함양이 윤리 교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교과목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⁵⁾ 따라서 인성을 교육하는 것은 범교과적인 영역이기에 교과별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1) 민승기, 『인성이 경쟁력이다』, 나비의활주로, 2016. 17쪽.

2)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인성 덕목(가치)의 습득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정서, 품성을 기르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신체와 정신의 발달 및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행하고 있다.

3)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인성 함양은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목표에서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15.

4) 인성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교육청에서 시급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학교폭력, 흡연 및 음주, 학교 부적응, 청소년 우울증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주,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9, 58쪽.

5) 김계현 외,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2009, 85쪽.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문학 교육 중 하나인 설화 교육을 선택하였다. 설화는 구비 전승된 서사적 장르이며 민중의 공동작으로, 그 안에는 우리 민중들의 정서, 가치관, 이념, 바람직한 인간상의 모습이 모두 드러난다. 즉, 민족 공동체가 추구한 올바른 이념과 가치, 인성 덕목을 끌어낼 수 있기에 인성 차원에서 설화는 효용 가치가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설화가 인성 함양 제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문학 교육 중 설화 교육을 선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설화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때에는 학습자가 설화 안에 담겨 있는 인성 덕목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학습자는 설화 전승자가 전하고자 한 인성적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설화의 인성적 의미를 깨닫고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⁶⁾ 따라서 국어과에서 설화라는 교육 제재를 활용한 인성 함양은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통한 내면화를 유도할 수 있기에 유의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⁷⁾형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⁸⁾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바른 인성’을 가진 학습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가 인성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설화는 현재 민담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설화가 ‘신화적·전설적·민담적 성격’이 공존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6) 물론 최근 윤리 교과에서도 설화를 활용한 인성 함양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상정하고 그 존재가 올바른 삶을 지향하도록 실천 덕목을 유목화하는 윤리 교과의 특성 상 정해진 교훈적 덕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설화를 선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효도에 대한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효행 설화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인성적 가치들의 습득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학습자 스스로가 설화의 의미를 해석하여 내면화하는 ‘사고의 과정’이 이루어지기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본다.

7) 교과서는 이 설화를 <지하국대적퇴치>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퇴치(退治)는 ‘몰러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치(除治)는 ‘제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유의할 것이다. 처음 이 설화의 의미를 파악한 손진태도 제치 즉, 제거로 인식하여 이 설화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이 설화의 의미 중 인성 덕목 ‘절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욕망의 제거라는 의미가 도출되기 때문에, 제치가 적합하다고 보고 <지하국대적제치(地下國大賊除治)>로 표기하였다.

8) 교육부, 앞의 책, 1쪽.

‘신화형·전설형·민담형’으로 분류하고, 이 설화의 총체적인 의미가 인성 함양에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 유형들이 독자적으로 전하고자 한 인성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이 설화는 인성 함양을 위한 제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교과 교육과 더불어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이후 정기철⁹⁾은 인성 함양의 출발점은 국어과에서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어과 교육을 ‘상상력 훈련, 쓰기, 읽기, 문학’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인성교육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성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어과에서의 인성 함양이 강조된 이후, 구체적으로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한혜정¹⁰⁾은 국어과에서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즉, 자서전적 글쓰기의 방법으로 자아성찰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의는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작문 활동 과정에서 자아 성찰이라는 인성적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 함양과 의미가 상통한다. 하지만 이 논의는 청소년기 학습자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최숙기¹¹⁾는 국어과에서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독서지도’를 제안하였다. 즉, 책 읽기와 인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독서를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논의는 교수·학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9)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10) 한혜정, 「자아 성찰과 교수 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 『교육과정연구』 23권 2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117-132쪽.

11) 최숙기 「인성 교육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 4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3, 205-232쪽.

이 외에도 한미란¹²⁾은 운동주의 시를 통해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시도하였으며, 김주혜¹³⁾는 황순원 소설 「소나기」와 이청준 소설 「눈길」을 제재로 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기에 적합한 작품을 학습 제재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의 논의들은 문학을 통해 인성 함양을 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설화는 시, 소설 등의 갈래에 비해서 여전히 인성과 관련하여 활용도가 낮다. 이처럼 ‘설화와 인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와중에 박성연¹⁴⁾은 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어교육 전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화 재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관 지으려고 한 점에서 인성적 측면이 드러난다.

또한 김혜진¹⁵⁾은 설화에 나타나는 모범적인 인물을 통한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연구하였으며, 조은상¹⁶⁾은 설화 이어 쓰기 등 설화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설화를 활용한 글쓰기의 방법으로 인성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임유정¹⁷⁾은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읽기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설화문학의 인성적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인성과 설화 교육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들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체치>형 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

12) 한미란, 「인성 교육을 위한 운동주 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시 치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 김주혜, 「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을 위한 문학 치료적 국어교육 방안 연구: 황순원 「소나기」, 이청준 「눈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4) 박성연, 「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5) 김혜진, 「설화를 활용한 자기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249-278쪽.

16) 조은상, 「설화를 활용한 자기성찰의 글쓰기 방법 실행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91-336쪽.

17) 임유정,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두더지의 혼인>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는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설화의 교육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설화문학 중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설화를 인성 함양 제재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이 설화는 주인공이 진취적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주인공은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진 모범적인 모델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즉, 학습자들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신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성 함양 제재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에는 ‘신화적·전설적·민담적 성격’이 공존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설화에는 교훈적 측면의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성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는 세 가지 성격을 갖는 유형들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교훈적인 메시지가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인성 함양 제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설화가 지니는 다양한 각도의 교훈적 메시지 찾기는 학습자들이 추론해가는 ‘사고의 과정’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바탕을 세울 것이다. 먼저, 설화의 문학적 요소와 인성 함양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함으로써 국어과에서도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어떤 영역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분석을 통해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측면 교육적 가치를 논할 것이다. 이때에는 이 설화가 ‘신화·전설·민담적 성격’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연구를 할 것이다.¹⁸⁾ 민담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많이 인식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의 인성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은 긍정적인 ‘자아’의 확립이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의 측면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분석심리학 측면을 활용하여 이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이 설화가 신화적·전설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각편(各篇, version) 자료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설화가 신화적·전설적 성격을 갖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후에는 이 유형들이 갖는 인성 측면에서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인성 함양 측면에서의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먼저 이 설화가 수록된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인성 함양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대안적 학습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어떠한 절차와 활동을 통해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제언할 것이다.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은 국어교과의 특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말하기·쓰기 등 총체적인 언어 능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구안할 것이다.

18) 설화 장르가 신화·전설·민담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서로 성격을 공유하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 전제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8쪽.

Ⅱ.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의 가능성

1. 설화와 인성 함양의 관계

고전문학 중 설화(說話)란 글자 그 자체로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무 이야기나 설화가 되지는 않는다. 설화는 민족 집단의 공동의식¹⁹⁾이 반영된 문자 이전의 구비문학(口碑文學)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여야 한다.²⁰⁾ 즉, 설화는 민족 공동체적 삶의 궤적과 공유된 문화의식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결국, 설화는 우리 민족 집단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로, 기록문학과 달리 문학적인 소통 과정에서 전승자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의식이 잘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는 설화의 의미 해석을 통해서 삶에 대처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설화에는 공동체의 세계 해석에 대한 원형과 정서의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²²⁾

이뿐만 아니라 설화는 서사 문학의 하위 갈래이므로, 문학의 일반 요소인 정서, 상상, 사상, 형식을 지닌다.²³⁾ 이 중에서 설화에 나타나는 상상력과 사상적 측면을 통해 인성 함양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설화문학에서 나타나는 상상력과 인성 함양의 관계이다.

설화문학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은 전승 집단의 다양한 의식세계에서 생성된 역사적 상상력과 허구적 상상력, 그리고 현실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윤리·가치 규범에 대한 상상력까지 매우 폭넓게 나타난다.²⁴⁾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19) 공동의식은 집단생활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민족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사의식, 신앙, 세계관, 꿈과 낭만, 삶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이 있다.

20)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6, 11쪽.

21) 이인경, 「‘친구·우정’을 향한 설화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 -문헌·구비(口碑)설화에 나타난 ‘청탁’과 ‘배신’의 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6권, 국문학회, 2017, 257쪽.

22)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115-116쪽.

23) 신원기, 「설화(說話) 제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4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0, 8쪽.

24)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3쪽.

인성'과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신화적·전설적·민담적 성격으로부터 도출해 낼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성 함양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신화에 나타나는 상상력은 '신성존재에 대한 상상력, 타자(他者)에 대한 상상력, 공간에 대한 상상력, 시간에 대한 상상력, 세계 법칙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 이 중 '타자에 대한 상상력'은 사람들이 항상 인간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는 다른 존재이거나 다른 성격을 가진 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이다. '세계 법칙에 대한 상상력'은 신화에 나타나는 세계에 대한 질서와 법칙을 의미한다. 신화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후 개별 존재들의 의미가 나타나며, 그들은 서로 '통일성과 조화'와 같은 질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²⁵⁾

결국, 신화적 상상력에는 신이 존재하고 생활화하는 세계에 공동체의 논리를 항상 부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질서'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관점에서 신화 유형을 활용하면, 학습자는 신화를 통해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원리를 깨닫게 될 수 있으므로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전설에 나타나는 상상력에는 민중들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다. 특히 전설은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인물전설'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간상이 등장하게 된다.²⁶⁾ 이러한 인물 형상에는 민중들의 상상적 사고와 가치의식이 반영되며,²⁷⁾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민중들의 세계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²⁸⁾

또한 전설의 영웅적 인물은 패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실에서 비극적 패배를 경험한 민중들의 쓰라림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설은 패배의 모습보다 세상을 바꾸어 놓을 영웅적 인물에 대한 기대를 더 역설적으로 나타낸다.²⁹⁾ 이는 전설의 전승자들이 '영웅적 인물이 있었다라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살펴보면

25) 오세정, 앞의 책, 97-106쪽.

26)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전설형 또한 인물전설의 성격을 보인다.

27)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8, 69-70쪽.

28)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부, 1990, 14쪽.

29)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77-78쪽.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원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즉, 우리 민중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시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관점에서 전설 유형을 활용하면 학습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사회가 모범적인 사회의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으므로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민담은 주인공의 세계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³⁰⁾ 민담적 상상력은 자아의 우위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민담의 주인공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과업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권선징악의 가치관이 반영된 상상력을 통해 선과 악의 싸움에서는 항상 선이 승리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진실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돕기 마련이라는 운명론적 상상력이 발현되어 녹아 들어가 있다.³¹⁾

결국, 민담은 주인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²⁾ 그러므로 학습자는 민담 유형의 주인공에게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설화가 제시해 주는 올바른 인성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도 성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관점에서 민담 유형을 활용하면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설화문학에서 나타나는 사상 측면과 인성 함양의 관계이다. 설화는 흥미와 교훈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즉, 설화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흥미로우며³³⁾, 사소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민중들의 지혜와 세계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으므로 교훈적 성격의 ‘사상’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설화의 교훈적 측면인 사상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기만이 아닌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된다. 즉, 설화의 의미를 통해 학습자들은 외면 세계의 발견과 내면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살아간다는 외면적 세계의 발견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내면 문제의 해결은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³⁴⁾ 결국, 이는 인간 존재의 정체성 및

30) 김홍규, 앞의 책, 73쪽.

31) 장덕순 외, 앞의 책, 112쪽.

32) 신원기, 앞의 논문, 10쪽.

33)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48쪽.

사회성 형성, 내면과 외면 세계의 조화를 포함하므로 인성 함양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설화가 아니라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도 인성 함양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설화의 세계 형성은 ‘통시성(通詩性)’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작품의 세계 형성과 구분된다. ‘통시성’이란 설화가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적층문학(積層文學)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가치들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인성이 어떠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성 함양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처럼 설화와 인성 함양의 관계를 통해 설화가 인성을 함양시키는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화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설화 안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되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인성 함양 요소

에릭슨(Erikson)은 발달단계이론에서 청소년기를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았다. 청소년기는 학습자들이 자아가 완벽하게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학습자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 정체감(identity)’을 올바르게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이러한 발달단계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 정체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의미가 상통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교육은 청소년기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인성 함양의 측면인 ‘바른 인성’이 청소년

34) 신원기, 앞의 논문, 9쪽.

35) 신원기, 앞의 논문, 10쪽.

36) 김계현 외, 앞의 책, 80-82쪽.

년기의 각 학교급별 교육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자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교육목표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국가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인성 덕목을 중시하고 있다.³⁷⁾ 즉,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성 함양과 관련된 항목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국어과 수업 중 설화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공통 과목 국어의 ‘문학’ 영역과 일반 선택과목 중 ‘문학’, 진로 선택과목 중 ‘고전 읽기’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가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설화는 고전문학의 하위 갈래이기 때문에 문학 영역과 고전 영역으로 나누어서 성취기준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힌 후에는 어떤 영역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을 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논할 것이다.

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의 인성 함양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군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총 10개이다. 이 중 3개의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표 1>³⁸⁾과 같다.

<표 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	문학	(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37) 교육부, 앞의 책, 5-6쪽.

38) 교육부, 앞의 책, 53쪽.

		(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	--

(1)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문학 활동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다양한 수용·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이를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⁹⁾ 즉, 문학 안에 담긴 의미를 독자가 파악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문학 작품에 내재된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려는 것이다. 인간세계를 이해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삶을 성찰하는 것은 인성 함양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학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강하게 가꾸고자 하는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3)에서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갈등을 파악한 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독자가 파악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갈등의 요인을 파악한 후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수용하면 다양한 삶의 가치 및 원리를 학습할 수 있기에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10)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관련된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을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면화’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취기준은 여러 덕목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자 하는 ‘인성 함양’과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인성 함양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성취기준들뿐만 아니라 2015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건전한 심성’과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⁴⁰⁾ 이를 통해 문학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39) 교육부, 앞의 책, 53쪽.

40) 교육부, 앞의 책, 54쪽.

있다.

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의 인성 함양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군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총 5개이다. 이 중 1개의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표 2>⁴¹⁾와 같다.

<표 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국어 ‘문학’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고등학교 1학년	문학	(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군 문학 영역은 문학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문학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을 중시한다.⁴²⁾ 특히 (4)의 성취기준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4)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학습자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⁴³⁾ 이는 다양한 공동체적 차원의 가치를 이해·포용·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차원 인성 함양과 관련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국어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⁴⁴⁾는 점에서도 문학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교육부, 앞의 책, 66쪽.

42) 교육부, 앞의 책, 66쪽.

43) 교육부, 앞의 책, 66쪽.

44) 교육부, 앞의 책, 70쪽.

3)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일반 선택과목 ‘문학’의 인성 함양 요소

고등학교 공통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확장한 일반 선택과목인 ‘문학’은 자아 성찰, 타자 및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⁴⁵⁾ 즉, 문학을 통해 학습자의 건강한 정서를 기르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학 교육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과목 ‘문학’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성 함양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에서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아래의 <표 3>⁴⁶⁾과 같다.

<표 3> 일반 선택과목 ‘문학’ 중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영역	성취 기준
문학에 관한 태도	(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에 관한 태도에서는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문학의 가치가 자아 성찰·타자 이해·소통에 있다고 보고, 문학을 통해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삶을 모두 성찰하려는 것이다. (1)과 (2)의 성취기준을 보면, 문학을 통해 개인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 성취기준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생·공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⁷⁾ 결국, 이는 내면을 올바르게 가꾸어 개인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고, 관계적 차원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기 때문에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5) 교육부, 앞의 책, 123쪽.

46) 교육부, 앞의 책, 130쪽.

47) 교육부, 앞의 책, 130쪽.

4)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진로 선택과목 ‘고전 읽기’의 인성 함양 요소

진로 선택과목 ‘고전 읽기’에서는 고전 읽기 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하고 교양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⁸⁾ 특히 ‘고전과 삶’ 영역에서 고전 읽기를 통한 인성 함양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⁴⁹⁾와 같다.

<표 4> 진로 선택과목 ‘고전 읽기’ 중 ‘고전과 삶’ 영역 성취기준에서 인성 함양 요소가 드러나는 항목

영역	성취 기준
고전과 삶	(1) 고전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1)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보면, 이 성취기준은 고전 읽기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에 대해 탐구하고, 고전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여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⁵⁰⁾ 즉, 여기에서는 인성 함양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인성 함양과 관련된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은 어떤 영역에서 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지도할 때,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서사문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가능할 수 있다.⁵¹⁾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과목의 다양한 영역에

48) 교육부, 앞의 책, 167쪽.
 49) 교육부, 앞의 책, 173쪽.
 50) 교육부, 앞의 책, 173쪽.
 51) 교육부, 앞의 책, 54-55쪽.

서 나타나는 설화 교육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 활동을 인성 함양 측면으로 설계할 수 있기에,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 선택과목 ‘문학’ 중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서는 구비문학과 같은 학습자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제재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설화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진로 선택과목 ‘고전 읽기’는 고전을 통한 인성 함양이라는 목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그 평가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설화 교육’에 중점을 둔 인성 함양에서는 다소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전 읽기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교과서가 제작되지 않으므로 고전의 선정, 자료의 제공, 학습 활동의 구성을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등의 개인차와 교실 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들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⁵²⁾ 즉, 현장의 조건들과 학습자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교육 현장에 없는 필자로서는 교수자의 입장만 드러나기에 고전 읽기의 교수·학습을 제시하는 것은 작품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인성을 ‘평가’하려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 교육 안에서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 읽기’ 과목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문학’ 영역 내에서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시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화 교육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2015 현행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및 개선 방향

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기에, 교과서에 실린 설화 수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 제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교과서를

52) 교육부, 앞의 책, 175쪽.

검토해봄으로써 실제 학교에서 설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앞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일반 선택과목 ‘문학’ 내에서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시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기에 이 과목들의 교과서들을 검토할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⁵³⁾은 <표 5>와 같다.

<표 5>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번호	성취기준	작품명	수록 교과서	분류
①	[읽기(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비상 중학교 국어 1-2(김진수)	본문
		열두 살에 나라를 세우다 (주몽신화)	지학사 중학교 국어 1-2(이삼형)	본문

<표 5>에서처럼 설화는 6종의 교과서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단 2편뿐이었다. 즉, 각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된 설화 수는 다른 갈래에 비해서 매우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설화가 낮은 빈도로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읽기’ 영역에서 특정 성취기준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요약하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설화가 문학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문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특정 성취기준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국어 교과에서 설화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설화 수록 현황은 임원진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을 분석한 것⁵⁴⁾과 달라진 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문이 아닌 활동으로 수록되기는 하였으나, 설화가 인성적 측면으로서 갖는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출판에서는 통합 활동으로 낙랑

53) 현재 중학교에서는 9종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록 양상을 살펴는 데에는 6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화가 본문에 실린 것만 표에 제시하였다.

54) 이때에도 설화 수록은 다른 갈래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 임원진, 「중학교 교과서 수록 설화 작품 및 학습 내용 분석 -2009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1쪽.

공주와 호동 왕자 이야기를 가져옴으로써 설화를 활용하고 있다.⁵⁵⁾ 이 경우, 갈등을 파악하고 인물의 행동과 가치관을 평가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학사에서 소단원 도입 활동으로 황희정승 이야기를 가져옴으로써 설화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림으로만 제시하고 이야기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⁵⁶⁾ 여기에서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같이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배려’의 태도를 길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이는 도입 활동이기 때문에 이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일화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선택과목 문학 교과서의 설화 수록 현황으로, 이는 <표 6>과 같다.

<표 6>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선택과목 문학 교과서 설화 수록 현황

번호	성취기준	작품명	수록 교과서	분류
①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주몽 신화	해냄에듀 고등 국어 (정민)	본문
②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나무꾼과 선녀	천재교육 고등 문학 (김동환)	본문
③	[12문학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어미 말과 새끼 말	지학사 고등 문학 (정재찬)	본문
		용소와 며느리바위	천재교육 고등 문학 (정호웅)	본문

55) 이은영 외, 『중학교 국어 1-2』, 동아출판, 2018, 140-145쪽.

56)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2』, 지학사, 2018, 82쪽.

④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주몽 신화	미래엔 고등 문학 (방민호)	본문
		주몽 신화	비상 고등 문학 (한철우)	본문
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김현감호	지학사 고등 문학 (정재찬)	본문
		단군 신화	해냄에듀 고등 문학 (조정래)	본문
⑥	[12문학03-06]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구지가와 가락국기	동아출판 고등 문학 (김창원)	본문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천재교육 고등 문학 (김동환)	본문

<표 6>에서처럼 고등학교 국어·선택과목 문학 교과서에서는 설화가 중학교보다는 본문에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설화가 중학교와 달리 다양한 성취기준에서 학습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를 검토해볼 때 다른 갈래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의 표를 보면, 설화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학습 제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설화는 전통적 특성을 통해 한국 문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설화의 교육적 활용을 이 범위에만 한정해 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표에서 ②를 보면, 설화가 인성 교육적 측면의 학습 제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가 갖는 의미를 학습자가 파악하고, 이 의미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용·생산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즉, 설화가 윤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부각한 교과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설화의 교육적 활용은 양적인 차원에서도 빈약하며, 학습 제재로서 내용이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설화는 학습 내용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설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설화문학에 대한 교육적 연구가 미진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 교육은 설화 각 유형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설화의 교육적 활용을 인성 측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설화는 한국문학의 전통적 특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교훈적 내용 및 다양한 공동체가 추구한 가치·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으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설화가 인성 측면의 교육적 의미와 더불어서 교과서에 제시된다면,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설화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창의·융합형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화의 교육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화는 ‘인성 함양’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설화에 나타나는 인성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를 인성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세밀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중심텍스트로 선정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의미 해석을 통해 이 설화가 인성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과 ‘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이 함양되어야 하는데,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가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특히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 전설적 성격을 갖는 ‘전설형’, 민담적 성격을 갖는 ‘민담형’으로 나누어 서사구조를 분석한 후, 세 가지가 독자적으로 전승되는 것에 유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서사적 구조와 의미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인성 측면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이 설화의 서사구조를 먼저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설화는 지하국에(地下國)에 사는 대적(大賊)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인을 납치한 후, 주인공이 그 대적을 없애고 귀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각편이 채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널리 전승되어 왔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한 각편은 전국에서 채록한 자료인 『韓國口碑文學大系』⁵⁷⁾에 실린 22개의 자료와 손진태의 『韓國民族說話의 研究』⁵⁸⁾에 등장하는 1개의 자

57)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58) 손진태,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7.

료,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⁵⁹⁾에 등장하는 2개의 자료로, 총 25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수록지	쪽수	설화제목
①	한국구비문학대계 1-1	505-513	재털병거지와 곁의 형제
②	한국구비문학대계 1-4	162-166	오광대 쓴 장사
③	한국구비문학대계 2-8	727-730	돼지 자손 최고운
④	한국구비문학대계 3-1	389-393	도둑 퇴치
⑤	한국구비문학대계 4-2	668-673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
⑥	한국구비문학대계 5-2	579-581	멧돼지에게 각시 구한 이야기
⑦	한국구비문학대계 5-4	698-702	해남 최한량
⑧	한국구비문학대계 5-4	788-799	지하대적퇴치
⑨	한국구비문학대계 6-2	698-702	도적놈에게 빼앗긴 마누라
⑩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362-367	곤륜산에 사는 도둑
⑪	한국구비문학대계 7-1	289-296	최고운(崔孤雲) 이야기
⑫	한국구비문학대계 7-1	454-458	최치원 이야기
⑬	한국구비문학대계 7-5	276-278	천년묵은 금도야지
⑭	한국구비문학대계 7-6	387-390	최고운의 출생
⑮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646-654	조천석과 지하도적 백강야지
⑯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39-42	지하 도적잡고 용왕국에서 얻은 연적
⑰	한국구비문학대계 8-3	528-542	최고운
⑱	한국구비문학대계 8-4	98-102	최고운
⑲	한국구비문학대계 8-5	346-351	최고운 선생
⑳	한국구비문학대계 8-5	982-991	최고운 이야기
㉑	한국구비문학대계 8-9	495-499	최고운 선생 전설
㉒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00-208	금돼지가 낳고 학이 키운 최고운
㉓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106-116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
㉔	『한국민간전설집』	138-140	최치원 출생 전설
㉕	『한국민간전설집』	426-428	금 돼지와 원

이 설화는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 <돼지 자손 최고운>, <최고운(崔孤雲) 이야기>, <최치원 이야기>, <최치원의 출생>, <금돼지가 낳고 학이 키운 최고운> 등 최치원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제목이나, <도둑퇴치>, <지하대적퇴치>,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 등 지하에서 사는 대적과 관련된 제목으로 채록·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설화는 소설 창작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김원

59)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전>, <최고운전>, <홍길동전>, <금방울전> 등에서 이 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각편들은 남성 주인공이 납치당한 여성 주인공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모두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한 각편들을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 전설적 성격을 갖는 ‘전설형’, 민담적 성격을 갖는 ‘민담형’으로 분류하였다.

‘신화형’의 경우 아내가 납치된 후 남편이 구출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임신·출산을 하는 결말이 나타난다. 현승환⁶⁰⁾은 이 유형을 의례적 성격과 연관지어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임을 주장하며 신화적 성격이 드러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견해를 따라서 이 유형을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전설형’의 경우 인물전설의 형태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탄생부분에서 대적퇴치와 관련이 있는 서사구조이다. 이 유형에서는 갈래의 특성처럼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민담형’은 처녀가 납치된 후 주인공이 구출하고, 함께 돌아와서 결혼(혼인)을 하는 결말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신화형’을 I 유형, ‘전설형’을 II 유형, ‘민담형’을 III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신화형을 중심 화소별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유형(신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 부부가 살고 있다. ② 아내가 대적에게 잡혀간다. ③ 무능하게 빼앗겨버린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간다. ④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적이 사는 곳에 도달한다. ⑤ 아내의 도움으로 대적을 죽인다. ⑥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 (아이는 대적의 형상을 하고 있다.)

I 유형에서는 ‘임신·출산’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 등장인물간의 관계도 처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니라 부부 관계로 설정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내를 납치한 대적을 퇴치하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자 아내에게 태기(胎氣)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는 결말을 갖는다.

60) 현승환, 「지하국대적제치계 설화의 성인식과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102집, 한국언어학회, 2017, 169-193쪽.

신화 텍스트는 공동체가 향유한 것으로, 그 안에는 공동체가 추구한 가치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 설화의 의미는 다른 유형들보다 공동체의 의식을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있다.

다음은, 전설형을 중심 화소별로 서사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II 유형(전설형)
① 한 남성이(최치원의 아버지) 고을 원에 부임했는데, 그곳의 원으로 부임하면 아내를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한다.
② 아내의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
③ 남편(최치원의 아버지)은 아내를 찾으러 간 후, 아내의 종적을 알게 된다.
④ 아내의 지혜로 대적(돼지)을 죽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돌아온다.
⑤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
⑥ 남편은 대적(돼지)의 자식이라고 의심하며 아이를 버린다.
⑦ 아이는 자라서 나승상 댁의 종(破鏡奴)이 된다.
⑧ 중국에서 석함(石函)을 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
⑨ 아이가 조정에서 부탁한 물건(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된다.
⑩ 중국에서 보낸 계란이 병아리가 된 것까지 고려하여 그 안에 든 것이 병아리라고까지 표현한 아이에게 중국 궁정은 감탄한다.
⑪ 이 아이는 신라의 대문호인 최치원이며, 그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문인이 된다.

II 유형에서 ①-⑤까지의 화소를 살펴보면 I 유형과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저탄생(金猪誕生)삼화에서 대적을 제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에 내용과 구조가 비슷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I 유형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II 유형은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인공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 즉, II 유형은 부부가 버린 아이가 자라서 최치원이 되고, 그의 영웅적 일대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사구조이다. 이는 인물전설의 성격이 드러나기에 ‘전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 설화의 의미는 인물전설의 주인공인 최치원의 행적을 통해 전승자들이 세계에 대해 갈망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그가 사회라는 세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민담형을 중심 화소별로 서사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Ⅲ유형(민담형)
① 한 평범한 남성이 살고 있다. ② 한 여성이 대적에게 납치된 것을 목격한다. ③ 납치된 여성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④ 길을 나선 후 3명의 남성과 힘을 겨루어서 이긴 후 의형제를 맺는다. ⑤ 대적이 사는 곳에 도달한다. ⑥ 여성의 도움과 더불어 대적을 퇴치한다. (경우에 따라 지상으로 올라갈 때, 3형제가 배신을 하기도 한다.) ⑦ 돌아와서 남녀는 결혼한다.

Ⅲ유형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완벽한 ‘영웅성’을 보여주는 서사구조가 나타난다. 이 유형에서 주인공 남성은 정승의 아들, 비범한 능력을 가진 남성, 평범한 총각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설화 중 민담의 특징인 ‘자아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민담적 성격을 갖는 ‘민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 제시한 서사구조의 예외로, 마지막 부분에 3명의 남성이 주인공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성은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민담의 ‘낙관적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유형 설화의 의미는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통해서 그가 추구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는 각편의 서사구조가 ‘신화형’, ‘전설형’, ‘민담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는 신화·전설·민담적 성격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고 풍요롭게 해왔다. 결국, 각 유형별로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서로 함께 향유되면서 전하고자 한 총체적인 의미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총체적인 의미를 ‘인성 함양’에 두고자 하므로, 이 세 가지 유형들이 독자적으로 전하고자 한 인성 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에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요구된다.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은 바르고 건전한 내면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인성 교육적 가치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민담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민담형

이미 이 설화의 민담적 성격은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성격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인성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파악할 것이다. 민담이라는 갈래는 주인공이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미 인성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이 ‘긍정적인 자아의 확립’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성적 가치를 ‘자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자아’란 의식의 중심으로, 의식계를 통괄하는 것이다. 즉, 자아는 의식의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내부세계인 무의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⁶¹⁾ 결국, 이와 같은 자아에 대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분석심리학’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하여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민담형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여 그 의미를 도출해 낼 것이다. 특히 인물의 진취적인 행동에 유의하여 분석심리학을 도입하여 해석해볼 것이다.

(1) 집단무의식을 통한 원시적 심성

분석심리학의 대표학자는 칼 구스타프 융(C. G. Jung)과 그의 수제자이며 민

6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2014, 55쪽.

담학 권위자인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Marie-Louise von Franz)가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로 포괄되는 전체 정신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인간 존재의 전체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특히 융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능력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⁶²⁾ 이는 인간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파악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존재의 전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아 성찰을 위해서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의식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마음의 심층으로, 개인적 삶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집단적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마음의 심층으로, 선형적인 것이다. 이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⁶³⁾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탐구는 우선 ‘원형(archetype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형이란 인간 행동의 선형적 조건으로,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행동이다. 이러한 원형은 특히 ‘상징’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즉, 그것들이 이미지로 변화되어 ‘원형상(archetypal image)’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⁶⁴⁾ 결국, 상징으로 나타난 집단적 무의식인 ‘원형’을 파악하면,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융과 폰 프란츠는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발견할 때, 설화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설화는 인류의 공동작이므로 원시적인 심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폰 프란츠는 민담이 집단적 무의식의 정신과정과 원형을 신화나 전설보다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민담의 등장인물은 원형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⁶⁵⁾

62) 이부영, 앞의 책, 25쪽.

63) 이부영, 앞의 책, 19쪽.

64) 이부영, 앞의 책, 117쪽.

65) 김라연, 「자기 성찰을 위한 설화 교육의 가능성 탐색 : 분석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3권, 한국독서학회, 2017, 108쪽.

(2) 4단계 구조를 통해 본 심성적 특징

<지하국대적제치>설화의 민담형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를 중심 제재로 선정하였다.⁶⁶⁾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민담을 해석할 때에는 극의 구조를 ‘제시부(exposition)-전개부(peripeteia)-절정(climax)-해소부(lysis)’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⁶⁷⁾ 또한 용은 이야기에 나타난 상징을 해석할 때에는 그 상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연상을 수집하여 뜻을 발견해내야 하는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방법을 통하여 민담형의 의미를 파악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각편들의 ‘제시부’에는 먼저,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남성 주인공의 경우 정승의 아들이거나 비범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기도 하며, 평범하거나 힘이 센 총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남성 주인공은 길에서 만난 3명의 형제와 함께 다니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성 주인공의 경우에는 정승의 딸, 부자의 딸로 나타난다. 또한 대적(大賊)은 대체로 매우 크고, 큰 힘을 지닌 존재로 쉽게 죽이기 힘든 상대로 나타난다. 이는 요괴, 청 너구리, 도적,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제시부의 배경은 지상과 지하로 설정되어 있다. ‘지상’은 ‘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하’는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상황은 밝은 ‘의식’과 대치되는 어두운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상황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시부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대적(大賊)이 여성을 지하로 납치하는 것이다. 남성은 여기에서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여성이지만, 그 여성을 찾으러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66) 이 텍스트는 표준어로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텍스트를 원고에 수록하기에는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원고에 차용하였다.

67)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5, 42쪽.

68) 박효인,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1권 1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6, 42쪽.

아들은 “오늘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납치 해서는 산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퇴치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른 정승 집에서 “세 딸을 구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돈과 세 딸을 줄 것이다.”라는 방을 붙였다.⁶⁹⁾

위의 텍스트를 보면, 남성은 처음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은 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즉,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을 구하러 가고자 하였다. 결국, 보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여성이 이미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으므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개부’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지하계에 있는 여성 주인공의 구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지하세계로 들어갈 때는 입구도 좁고, 찾기 힘들게 설정되어 있다. 이를 분석심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지하’라는 의식의 반대인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자기를 아는 과정이 매우 힘든 것임은 용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남성 주인공이 왜 무의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구출하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검토해 본 각편들과 위의 텍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잡혀갈 때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은 원래 지하에 있었던 존재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결국, 여성 주인공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여성성인 ‘아니마(Anima)’라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선천적으로 남자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여성적 요소를 무의식에 갖게 되고(아니마, Anima), 여성은 그 무의식에 남성적 요소를 갖게 되는(아니무스, Animus) 조건 아래 있다고 본다.⁷⁰⁾ 결국,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다. 또한 분석심리학은 이러한 무의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포괄되는 인간 존재가 되는 것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69)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9, 297쪽.

70) 이부영, 앞의 책, 2014, 111쪽.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 주인공의 또 다른 내면 인격이며, 남성은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주인공은 자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하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만나서 대적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이 둘은 합일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정’에 이르러서, 대적과 남성은 만나게 된다. 대적은 지상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인 여성(아니마)을 지하로 데려간 존재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자아에 의해 인정되지 못하는 경험이나 정신 즉,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들은 모두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한다. 결국, 이 설화에서 지하세계에 존재하는 ‘대적’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부정적인 모습인 ‘악’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에서도 매우 파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주인공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즉, 이 대적의 형상은 의식을 사로잡아 버리는 무의식적인 ‘욕망, 욕구, 이기심’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적을 만난 이후, 마침내 남성은 대적의 목을 자르고 죽이게 된다. 설화에서 대적이 죽임을 당할 때는 피로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거나, 자신이 스스로 약점을 말하거나, 여성이 먹인 독주(毒酒)로 인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대적이라는 무의식의 형상 즉, ‘욕망과 욕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악한 ‘욕망’ 같은 것들은 순간적으로 의식에 나타나서 의식을 사로잡기는 하나, 다시 무의식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가만히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완성된 자아가 되기를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을 칼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용의 입장처럼 ‘확충’을 통해 상징 의미를 해석해 볼 것이다. 칼로 자르는 것은 분리, 분할, 해방을 의미하며, 특히 불교에서 칼로 자르는 것은 무지와 오만의 속박을 잘라 도려내는 것으로 해방을 상징한다.⁷¹⁾ 결국 칼로 대적을 베는 것은 ‘악’의 무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욕망과 욕구를 잘라 도려내서 제거함으로써 해방하게 되고,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

71) 박효인, 앞의 논문, 81쪽.

인격인 여성도 구출해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소부’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결혼은 ‘대극의 융합’으로, 전일성(totality)의 상징이다. 따라서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인격적 성숙’을 통한 완벽한 자아의 형성을 의미한다.⁷²⁾ 결국, 해소부에서 남성은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 인격인 ‘아니마(Anima)’ 또한 얻게 되어 자아의 합일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이는 ‘인격적 성숙’ 즉, 완벽한 자아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3) ‘개인적 차원의 인성 성실·용기·절제’ 의미 도출

물론 주인공이 진취적이고 용감한 모습을 보인다는 민담이라는 특성 자체만으로 개인적 차원의 인성인 ‘성실·용기’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아’ 측면의 인성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심리학적 해석의 선행 연구에서 신연우는 이 설화가 세계의 어떤 강한 힘에도 눌리지 않고 극복하는 자아실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⁷³⁾ 박효인은 이 설화가 자아가 충분히 강화되어 준비함으로써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자아의 여행담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⁷⁴⁾

이와 더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 설화를 통해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악’이 의식에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자아의 세계를 지배해버렸으나, 자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탐색하며 그를 제거하였고, 더 나아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 설화의 민담형이 자아의 탐색 모티프를 활용하여 ‘긍정적 자아 존재로 함양’시키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절제’의 덕목도 이 설화의 인성적 가치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담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개인적 차원의 인성 덕목은 <표 7>과 같다.⁷⁵⁾

72) 이부영, 앞의 책, 1995, 46쪽.

73) 신연우,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 『열상고전연구』 1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7-310쪽.

74) 박효인, 앞의 논문, 2016, 41-94쪽.

<표 7> 민담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개인적 차원의 인성 덕목

차원	덕목	의미 및 기능	관련 덕목·인성	교육적 기대효과	
				자기·타인	사회·자연
개인적 차원	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원리를 준수하고 도덕적 양심에 충실하여 자기가 한 말을 실행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지켜 나가는 것 · ‘전일성’ 즉, 일관성을 지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 · 신의 · 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한 삶 · 성찰하는 삶 · 지행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세상 · 자연보전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 · 강한 의지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감함 · 불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양심과 행동의 일치 · 타인에게 도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존속 및 발전에 참여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통제 · 자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욕구 및 분노 조절 ·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건진성 제고 · 자연보전

결국, 민담형을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성실·용기’의 덕목뿐만 아니라, 자아 내면의 부정적인 것을 지양하고 자아를 긍정적인 존재로 함양할 수 있는 ‘절제’의 덕목 또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민담형의 인성 교육적 가치는 학습자들의 개인적 차원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75)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5, 100쪽.

3.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에는 앞서 살펴본 개인적 차원의 인성 함양과 더불어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요구된다.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은 학습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교육적 가치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신화형’과 ‘전설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신화형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전승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신화가 수행하였기 때문이다.⁷⁶⁾ 또한 신화에는 공동체의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들이 정한 모범적 행위 방식인 삶의 지혜가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화에 담긴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와 가치 및 원리를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신화를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⁷⁷⁾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 ‘신화형’이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신화 텍스트라고 보았다. 현승환은 신화형에 나타나는 굴, 바위에 대한 신화 모티프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유형이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임을 증명하였다.⁷⁸⁾ 이에 이 연구에서도 이 설화가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⁷⁹⁾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76)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호, 한국구비문학회, 2006, 232쪽.

77) 변숙자·현승환,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신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 10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305쪽.

78) 현승환, 앞의 논문, 2017, 169-193쪽.

79) 이 연구에서 말하는 신화는 서양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례와 관련된 구술상관물이다.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설화를 살펴보면 물, 새, 명주실과 같은 신화요소⁸⁰⁾들이 이 설화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 안에 신화적 의미가 드러남을 살펴보고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임을 밝히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신화형 안에 담긴 우리민족이 추구한 가치와, 모범적 행위를 살펴볼 것이다.

(1) 신화요소: 물

신화는 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례에서는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반드시 목욕재계를 한다. 이것은 정화되지 않은 것에는 새로운 영적인 힘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이다.⁸¹⁾ 이를 통해서 볼 때, 신화적 의미에서의 물은 ‘정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신화형’의 서사구조에 나타나는 ‘물’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신화형의 서사구조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동삼수(童參水)나 장군수(將軍水)를 먹이게 되면서 남성은 힘이 세지게 된다. 이를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 또한 재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가임부부로서의 인격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은 정화라는 신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물은 곧 신화요소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설화는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로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조사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신화형 중에는 남편이 부인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가는 도중에 조력자 여성을 만나게 되는 각편이 있다. 이 조력자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따라오라고 하더니 물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다. 이를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례에 앞서 목욕재계를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신화형은 ‘기자의례’의 모습을 서사로 생생하게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 신화소는 신화의 줄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근원적인 모티프지만, 신화요소는 신화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일컫는다.

81) 이안나, 「한국과 몽골의 물 상징성에 대한 비교 고찰 -구비문학과 민속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20권, 한민족문화학회, 2007, 71쪽.

(2) 신화요소: 새

사람들은 자신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를 경외(敬畏)하고 숭배하였다. 새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비상(飛上)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숭배하였다. 이러한 새는 신화에서 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닿는 존재이기에 신들의 사자(使者)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⁸²⁾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신화형’의 서사구조에서는 새 중에서도 ‘학’이 많이 등장한다. 학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예로부터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표상한 십장생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은 인간 생명의 영원성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화형의 각편들을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대적의 모습과 비슷해서 아이를 버렸더니 학이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여기에서 학은 아이의 생명을 구원·보호해주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학은 천신(天神)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⁸³⁾ 결국, 태어날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 생명의 영원성을 기원하기 위해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의 전승자들은 학이라는 신화요소를 상상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설화는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로 신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신화요소: 명주실

‘명주실’의 의미를 신화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삼승할망은 ‘꼭 모셔가고 싶으면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를 놓으라’고 했다.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가 놓여졌다. 그제야 삼승할망은 서천강의 명주 다리를 건너 대별상의 집으로 행차했다.⁸⁴⁾

82)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194쪽.

83) 최운식, 『설화·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364쪽.

84)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7, 35쪽.

앞에 제시된 텍스트는 <삼승할망 본풀이>로 제주도의 불도맞이에서 불리는 신화이다. 이 신화에서는 자식을 점지해주는 ‘삼승할망’을 모셔가기 위해서는 명주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즉, 신화적 의미로 명주실은 아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신화형의 각편을 살펴보면, 양반 내외가 생남생녀(生男生女)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내가 계속 사라지자 남편이 아내의 옷에 ‘명주실’을 묶어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신화형은 결말에 아이를 낳거나 임신을 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의 <삼승할망 본풀이>처럼 신화적 의미로는 명주실이 아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자의례에서의 실이 구술상관물에서는 명주실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형상화하여 서사구조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 설화는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로 신화적 성격을 갖는 신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담형에서는 조력자가 노인으로 등장하지만, 신화형에서는 조력자가 처녀, 할머니 등 ‘여성’으로 등장한다. 조력자가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이 설화를 앞에 제시된 제주도의 <삼승할망 본풀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삼승할망은 명진국의 따님아기로 여성이다. 이러한 삼승할망은 아이를 생불(生佛) 즉, 잉태하게 해 준다. 신화형을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이었다고 본다면,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전승자들은 조력자의 형상을 아이를 잉태시켜 줄 삼승할망과 같은 여성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계적 차원 인성: 배려·책임·협동’ 의미 도출

신화형이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이었다고 하면, 이는 혼인한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행한 의례의 구술상관물이다. 부부는 이러한 의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불안함 등을 해소했으며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즉,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신화형에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화형에는 부부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한명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서로 ‘책임’ 의식을 갖고 ‘협동’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례가 행하였을 당시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의 슬픔에 ‘공감’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남편은 함께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배려’의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설화의 ‘신화형’은 부부라는 공동체가 그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실천한 ‘배려·책임·협동’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설화의 의미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설화 교육에 적용된다면, 학습자들에게는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신화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은 <표 8>과 같다.⁸⁵⁾

<표 8> 신화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차원	덕목	의미 및 기능	관련 덕목·인성	교육적 기대효과	
				자기·타인	사회·자연
관계적 차원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차원)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정함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이상의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공감, 연민, 관대, 봉사, 용서 등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 감정이입 연민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배려 타인배려 봉사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애 동식물 배려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맡아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의식과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책임 행위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행위 책임 자신의 미래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의 공동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동식물에 대한 책임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의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 연대성 조화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책무감 강화 상호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 증진을 위한 노력

85) 정창우, 앞의 책, 101-102쪽.

		· 공동체 발전과 변영의 필요조건			
--	--	-----------------------	--	--	--

물론, 의례가 오늘날에는 많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현재의 학습자들에게 적용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화가 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례의 구술상관물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례는 신성한 이야기가 된다. 결국, 의례의 구술상관물은 신화라는 텍스트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술상관물 안에는 의례를 행한 옛 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의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형상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례라고 봤을 때, 그 의미가 현대에 적용 가치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화텍스트의 가치 즉, 고전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화형에서 추출한 ‘배려’라는 덕목은 설화의 배경적 상황을 추측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장에서 제시된 황희정승 이야기로 학습자들에게 배려라는 덕목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이미 ‘배려’의 덕목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윤리 교과에서처럼 덕목을 제시하는 것일 뿐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에서는 ‘사고의 과정’을 중시한다. 설화 안에 담긴 가치를 파악하여 내면화하는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황희정승 이야기는 이미 덕목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신화형의 경우 배려라는 덕목은 추측을 통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등장인물의 입장에 유의하여 공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려라는 덕목을 추출해 낼 수 있기에, 내면화와 관련했을 때 더 바람직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설화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문제 해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이 설화의 담겨진 우리 민족의 모범적인 행동 즉, 공동체적 가치를 알 수 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보는 현대 경쟁 사회가 우리 사회를 양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있었으나, 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사회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 설화의 신화형 의미를 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중 ‘배려·책임·협동’ 의식이 함양될 것이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부간의 문제 해결 모습을 친구 간의 문제, 기업 간의 갈등 문제, 국가 간의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모습으로 확장하여 대입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설형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는 신화적 성격을 갖는 각편 ‘신화형’ 이외에도 전설적 성격을 갖는 각편 ‘전설형’을 통해서 학습자의 관계적 차원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특히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전설형은 최치원이라는 실제인물과 관련이 있는 ‘인물전설’로, 이 경우 인물이 사회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서사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 인물의 행적을 통해 자아가 세계와의 갈등구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에 전설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유형을 통해 인성 함양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서사구조를 통해 이 유형이 전설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설의 특성인 ‘구체적 공간과 증거물’이 서사구조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서사구조에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전설형에 담긴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1) 전설의 특성: 구체적 공간과 증거물

그 고운(孤雲) 선생님 그 생장지지(生長之地)가 마산(馬山)입니다. 마산 그 돌섬(豬島), 마산 앞에 그 섬이 쪼개는(조그마한) 기 하나 있어요, 돌섬 거어 났답니다.⁸⁶⁾

86) 정상복, 『韓國口碑文學大系 8-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00쪽.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전설형에서는 최치원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적제치 화소를 삽입하여 최치원의 비범한 탄생과 신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최치원이라는 주인공의 탄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장소들이 드러난다.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마산에 위치하는 ‘돌섬’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배경 공간을 통해서 인물전설로서의 신빙성이 부각되고 있기에⁸⁷⁾ 이 유형은 인물전설의 성격을 갖는 ‘전설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설의 경우 ‘증거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성을 강조한다. 자연물이나 사물이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물전설의 경우 ‘인물’ 그 자체로 증거물이 된다.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전설형에서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라는 이름이 명시되고 있어서 전설 내용의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인물전설의 성격을 갖는 ‘전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설의 특성: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구조

전설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드러난다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전설형’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드러난다.

중국서 석함(石函)이 하나 왔는데, ‘이 안에 들은 물건을 알아 내라.’ 이기라. ‘만약에 이 물건을 안 알아 내면은 신라에서 조공을 얼마를 바치야 되고, 많이 바치야 되고...(하략).’⁸⁸⁾

위의 텍스트처럼 <지하국대적제치> ‘전설형’에서는 중국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 물건을 보내고, 우리는 조공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든 물건의 정체를 알아내야 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조공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없기에 서로 ‘갈등’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문제를 제시할 때, 당연히 우리가 풀지 못할 것이

87) 현승환, 「최치원 설화의 형성」, 『백록어문』 11권, 백록어문학회, 1995, 72쪽.

88) 정상복, 앞의 자료, 204쪽.

라고 판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석함(石函)이라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깨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풀지 못할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강제적인 힘 즉, 절대적인 우위가 드러나는 갈등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최치원은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즉,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개입함으로써 주인공과 중국의 대립상황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구조가 드러나고 있기에 전설적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를 ‘전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관계적 차원 인성: 예절·존중·정의’ 의미 도출

앞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지하국대적제치>의 ‘전설형’은 인물전설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전설이라 하면, 앞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구조에서 자아가 패배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인물전설’의 경우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더라도 주인공의 패배와 좌절의 모습보다는 영웅적 면모가 더 부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웅적 주인공이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설화의 서사구조에서 보면, 중국에서 제시한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그 안에 든 물건을 맞히고, 중국으로부터 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전설형’의 전승자들이 최치원이라는 영웅적인 인간상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중국에 대한 독립의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존중·정의’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며, 부당하고 강제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 서로 격식을 갖추는 ‘예절’의 모습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설형은 우리 민중이라는 공동체가 간절하게 원했던 ‘예절·존중·정의’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설화의 의미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설화 교육에 적용된다면, 학습자들에게는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설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은 <표 9>와 같다.⁸⁹⁾

<표 9> 전설형의 의미를 토대로 추출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차원	덕목	의미 및 기능	관련 덕목·인성	교육적 기대효과	
				자기·타인	사회·자연
관계적 차원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차원)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준수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격식을 갖춘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절 겸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손, 친절함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도덕 준수 글로벌 에티켓 준수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나 사물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존재만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존중 타인존중 생명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문화 존중 인류애 자연애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자기존중과 자신의 권리 및 존엄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포함함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감 형성 공평한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정의 추구 글로벌 정의 추구

결국, 전설형의 전승자들은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강국이 약국을 괴롭히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예절·존중·정의’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추구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89) 정창우, 앞의 책, 101-102쪽.

IV. 인성 함양 측면 설화 교육 방안

앞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측면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밝혔으므로 이 장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우선 이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이때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검토하여 구성할 것이다. 이후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 절차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1.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학습 내용

이 설화는 대체로 ‘민담’이라는 성격으로 한정하여 알려졌다. 하지만 설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화·전설·민담적 성격’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설화에 세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각 성격이 나타나는 유형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인성 측면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유형 모두를 활용하여 인성 함양을 하고자 하기에, 이 설화의 각 유형이 갖는 인성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도록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을 하고자 하기에 선택과목인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설화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고 교육할 것이다. 선택과목 ‘문학’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II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영역의 교육목표가 ‘자아 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

키는 데 있으므로 인성함양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습 활동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⁹⁰⁾에 실린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중심으로 하며,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습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을 바탕으로 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는 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⁹¹⁾

1) 기존 교과서 학습 내용 분석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가 실린 교과서 단원의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1. 세계 문학과 관계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⁹²⁾

물론 교과서에서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통해 우리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은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설화를 통해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인성 함양이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라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며, ‘문학’ 영역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에서 공식적인 목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과서에는 ‘내용 학습’에서 인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0) 김동환 외, 앞의 책, 2019.

91) 본문의 내용은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록으로 제시할 것이며, 교과서의 학습활동 부분만 이 논문에 인용하고자 한다.

92) 교육부, 앞의 책, 128쪽.

교과서 ‘내용 학습’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내용 학습
<p>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자.</p> <p>(1) 무사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2) 등장인물들을 다음 표와 같이 나누어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사가 모험에 나서게 한 인물:- 무사를 도와준 인물들:- 무사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들:- 무사가 모험의 대가를 얻게 한 인물들: <p>(3) 무사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무사의 성격을 중심으로 말해 보자.</p> <p>2.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사건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보자.</p> <p style="padding-left: 2em;">㉠: 지상 → ㉡: 지하 → ㉢: 지상</p> <p>(1) ㉠, ㉡과 ㉢의 경계 지점의 특성을 말해 보자.</p> <p>(2) 무사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정리해 보자.</p> <p>(3) ㉡에서의 무사는 ㉠에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천재교육(김) 『고등 문학』</p>

먼저, 교과서에 나타나는 본문 내용은 중심 서사구조가 ‘민담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용 학습’은 자아의 우위가 드러난다는 민담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장인물 중 주인공에 관심을 두고, 그 인물의 행위와 어려움의 극복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에 유의하여, ‘적극성, 준비성, 용감함, 신중함,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건 전개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앞서 <지하국대적 체치>형 설화의 ‘민담형’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성 측면의 교육적 가치인 ‘성실, 용기’의 덕목을 인식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 설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중들의 정서가 발견되기 마련이다. 즉, 설화의 서사구조에는 우리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의 측면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측면에서의 교육적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사구조와 함께 인성적 가치를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가치 중 ‘절제’의 덕목은 내용 학습에서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치의 학습은 ‘활동지’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4.2.에서 추가로 제시할 것이다.

한편 ‘목표 학습’은 세계 문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를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와, 이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는 ‘몽골 부랴트족 설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공통점을 찾는 학습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학습’에서는 설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과, 모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설화의 특성 중 ‘구연’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적용 학습
<p>이 작품의 다음 부분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 보자.</p> <p>여인은 재차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최초의 대문을 들어갈 때 개에게 떡을 던져 주십시오. 개가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대문을 지키는 새에게는 콩을 던져 주십시오. 또 다음 대문을 지키는 (이하 잊어버렸음.)”이라며 이렇게 던져 줄 물건 열두 가지를 알려 줬다.</p> <p>(1) ‘(이하 잊어버렸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2) ‘개’와 ‘새’에 이어 등장시킬 만한 동물들과 그 동물들에게 던져 줄 물건들을 떠올려 보자. (3) (2)에서 떠올린 ‘동물-물건’의 짝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보자. (4) (3)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로 만들어 모둠원 앞에서 각자 구연하고 가장 잘 구연한 친구를 선정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천재교육(김) 『고등 문학』</p>

‘적용 학습’에서 나타나는 ‘모둠 활동’은 이미 그 자체로 인성 함양의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를 활용한 모둠원 간의 구연을 통해서 의사소통

에서의 ‘배려와 존중,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덕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⁹³⁾ 이는 국어과에서 행할 수 있는 인성 함양 교육적 접근 중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듬 활동’은 이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교과서의 ‘적용 학습’ 부분의 학습 내용이 설화 작품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적용 학습은 결국 설화라는 구비 문학의 보편적인 특성이 ‘구연성’을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설화의 구연성은 ‘구연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연자 나름대로 구연한 작품에는 각자의 ‘개성과 의식’이 반영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적용 학습의 내용을 토대로 구연성을 교육한다면, 구연성이라는 설화 작품의 특성은 ‘잊어버리는 것’과 ‘까먹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학습자에게는 ‘망각’과 같은 특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안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2) 대안적 학습 내용

대안적 ‘적용 학습’ ⁹⁴⁾							
<p>이 설화의 경우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지만,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유형들이 나타난다. 이 유형들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 유형</th> </tr> </thead> <tbody> <tr> <td>① 한 부부가 살고 있다.</td> </tr> <tr> <td>② 아내가 대적에게 잡혀간다.</td> </tr> <tr> <td>③ 무능하게 빼앗겨버린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간다.</td> </tr> <tr> <td>④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적이 사는 곳에 도달한다.</td> </tr> <tr> <td>⑤ 아내의 도움으로 대적을 죽인다.</td> </tr> <tr> <td>⑥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td> </tr> </tbody> </table>	(가) 유형	① 한 부부가 살고 있다.	② 아내가 대적에게 잡혀간다.	③ 무능하게 빼앗겨버린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간다.	④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적이 사는 곳에 도달한다.	⑤ 아내의 도움으로 대적을 죽인다.	⑥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
(가) 유형							
① 한 부부가 살고 있다.							
② 아내가 대적에게 잡혀간다.							
③ 무능하게 빼앗겨버린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간다.							
④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적이 사는 곳에 도달한다.							
⑤ 아내의 도움으로 대적을 죽인다.							
⑥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							

93) 정창우, 앞의 책, 285쪽.

94) 교과서의 적용 학습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다.

(나) 유형

- ① 한 남성이 고을 원에 부임했는데, 그곳의 원으로 부임하면 아내를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한다.
- ② 아내의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
- ③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간 후, 아내의 종적을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지혜로 대적(돼지)을 죽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돌아온다.
- ⑤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한다.
- ⑥ 남편은 대적(돼지)의 자식이라고 의심하며 아이를 버린다.
- ⑦ 아이는 자라서 나승상 맥의 종(破鏡奴)이 된다.
- ⑧ 중국에서 석함(石函)을 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
- ⑨ 아이가 조정에서 부탁한 물건(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된다.
- ⑩ 중국에서 보낸 계란이 병아리가 된 것까지 고려하여 그 안에 든 것이 병아리라고까지 표현한 아이에게 중국 궁정은 감탄한다.
- ⑪ 이 아이는 신라의 대문호인 '최치원'이며, 그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문인이 된다.

(1) 위와 같이 본문의 내용과 서사구조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른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지만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모둠원이 함께 생각해 보자.

(2) (나) 유형의 경우 본문의 내용과 달리 지하국대적의 형상이 '돼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것으로 등장시킬만한 동물에 대해 모둠원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 하나를 선택한 후, 그 동물을 대입한 <지하국대적퇴치>⁹⁵⁾설화 서사구조 ①-⑥을 이야기로 재창작하여 구연해 보자. ('동물'은 '지하국대적'과 특성상 관련이 있어야 할 것.)

교과서 적용 학습 (1)에서 구연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기에, 이 연구에서도 구연성 즉, 구비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적 적용 학습 (1)을 제시하였다.

95) 교과서에는 <지하국대적퇴치>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서도 이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대안적 적용 학습 (2)에서는 설화의 서사구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재창작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때, 서사구조와 비슷하도록 ‘동물’이 ‘지하국대적’과 특성이 관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동물’을 설정할 때 자신이 생각한 지하국대적의 특성과 관련된 동물들을 등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 동물은 욕심이 많은 동물,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동물, 학습자가 생각하기에 무서운 동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모두가 함께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창작하여 구연한 내용은 모두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설화의 구연에는 각 집단(혹은 개인)의 개성과 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화는 다른 문학 작품과 달리 ‘대면성’을 특성으로 한다. 대면성이란 설화 구연을 할 때 구연자와 청자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활동에서 재창작하여 구연하는 것을 통해 구연자는 언어·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구연을 하게 될 것이다. 청자는 구연자를 배려하여 듣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구연 활동은 인성 함양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을 위해서 이 설화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활용해야 함을 앞서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설화는 ‘민담형’으로만 많이 알려져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화형’과 ‘전설형’의 경우 텍스트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화형과 전설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대안적 학습 내용처럼 구연성의 특성을 교육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계하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학습 내용을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설화 문학의 보편적 특성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습 내용과 더불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활동으로 설화 교육을 할 것인지는 4.2.에서 제시할 것이다.

2.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의 실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너무 인성적 측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즉, 설화 교육과 인성 측면이 조화롭게 구성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설화 교육 절차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설화의 특성을 통한 서사구조를 파악하기’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가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측면에서의 가치를 추론하는 사고의 과정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절차는 ‘설화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 발견하기’로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학습자 개인이 설화에서 발견한 가치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생각도 이해하고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치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절차는 ‘모둠 활동을 통한 인성적 가치 공유하기’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가치들을 습득하여 학습자가 내면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화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자기 표현하기’로 제시할 것이다.

1)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절차

(1) 설화의 특성을 통한 서사구조 파악하기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육을 하고자 하기에 먼저, 학습자가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특성을 통해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 설화가 ‘신화적·전설적·민담적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화형, 전설형, 민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인성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형 모두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갈래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이해하고 파

악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화·전설·민담이라는 설화의 갈래적 특성을 교육할 수도 있으므로 설화의 보편성을 교육하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는 본문의 중심 텍스트인 ‘민담형’을 먼저 학습한 후, 4.1.에 제시한 대안적 적용 학습 활동을 통해서 ‘신화형’과 ‘전설형’이 학습될 것이다.

먼저, 민담형의 경우에는 자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특성을 통하여 주인공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면모를 보이는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형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질서가 부여된 신화적 특성을 통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설형의 경우에는 인물전설적 특성을 통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화의 특성을 통해서 서사구조를 파악하면, 학습자는 설화문학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기도 쉬울 것이며, 그 특성에 따른 등장인물의 행위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설화가 지닌 인성적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설화의 특성을 통한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를 통하여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전체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일차적 단계로서는 텍스트 이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인성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설화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 발견하기

설화의 특성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 및 서사구조를 파악한 이후에는, 설화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설화에 나타나는 인성적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다.

앞서 설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 안에 담긴 인성적 가치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설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학습자가 자신만의 고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활동지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여 답을 찾는 활동을 구성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성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3) 모둠 활동을 통한 인성적 가치 공유하기

이때에는 ‘모둠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인이 <지하국대적체치>형 설화에서 얻은 가치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모둠 활동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인성적 요소를 포함한다. 함께 소통하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한 것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즉, 학습자에게는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성적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가치 판단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발견한 가치와 더불어 또 다른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활동이 학습자 스스로의 성찰 과정을 중시하였다면, 이 활동은 학습자 간 소통을 통한 관계적 수준의 성찰 과정을 중시한다. 즉, 이는 경험이 확장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설화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자기 표현하기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체치>형 설화 교육의 목표는 설화 학습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마지막 절차에는 결국 설화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는 앞서 자신이 발견한 <지하국대적체치>형 설화에 드러나는 인성적 가치와, 타인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학습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성찰’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면화와 관련한 ‘자기 표현하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피아제와 콜버그의 경우 인성과 같은 도덕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⁹⁶⁾ 즉, 인성이라는 가치를 인지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의 마지막 절차로 ‘자기 표현하기’를 통한 성찰의 과정을 중시한 것이다.

자기 표현하기는 ‘활동지’를 통해 할 것이다. 활동지는 학습자들이 글을 써 내려가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키워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짚막하게 쓴 예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자기 표현하기 단계는 설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인성 함양을 위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교수·학습 활동 예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수업 내용을 유지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설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교사 중심의 활동은 최소로 할 것이며, 개별 및 모둠 활동을 함께 연계하여 구성할 것이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이 설화의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본문⁹⁷⁾과 내용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 설화 교수·학습 활동

교과서는 세계 문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 문학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로 한국 문학의 대표 장르인 ‘설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설화문학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계 문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설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96) 정창우, 앞의 책, 168-169쪽.

97) 교과서에 제시된 본문은 이 연구에서 분석한 ‘민담형’의 서사구조가 모두 드러나는 텍스트로 선정되어 있다.

위해서는 먼저 설화의 장르적 특성을 교육하는 것이 학습자에게는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적용 학습’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가 다양한 이본(異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활동이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설화 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조자료로 제시하여 교육할 것이다.

<보조 자료 ①>⁹⁸⁾ - 설화 문학의 장르적 특성⁹⁹⁾

● 설화란? ‘구비 전승’된 것으로 말 그대로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작품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갈래 특성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진실하고 신성하다고 믿음	진실하며 실제 있었다고 믿음	진실과 신성성에 관련 없이 흥미롭다고 생각함
시간과 장소	일상을 넘어 선 시간과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뚜렷한 장소와 시간 없음
증거물	매우 포괄적 (예: 국가)	개별적 증거물 (예: 바위, 연못, 인물 그 자체)	증거물 없음
주인공 및 행위	신의 능력 발휘	비범한 인간	일상적 인간 - 운명 개척
전승의 범위	민족적 범위	지역적 범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

위에 제시된 보조 자료를 함께 교육한다면, 학습자는 설화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는 본문이 ‘민담’형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의 의미를 흥미적

98) 장덕순 외, 앞의 책, 39-43쪽.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99) 설화라는 문학의 장르적 특성은 학습자들에게 설명만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실제 이 유형 설화의 구연을 들려주는 것과 병행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학생은 ‘구연’이라는 특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와 운명 개척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 학습의 각 과정을 활동하게 한 후, 거부감 없이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는 내용 학습과 관련된 활동지를 제시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학습에는 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그의 성격, 행위 및 역경 극복과정을 살펴보는 활동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내용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인 ‘성실’과 ‘용기’의 덕목은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민담형의 인성적 가치로 제시한 ‘절제’라는 덕목은 학습자들이 내용 학습을 통해 바로 인식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는 사고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활동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활동지 1-①>: 인물의 행위를 통해 성격 파악하기

무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바구니에 세 사람밖에 탈 수 없음을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 여인들을 먼저 태워서 보내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무사의 성격은 무엇인가?

물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론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교육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심리학이라는 것은 이 연구에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 민담형의 인성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이론이어서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교육하기에는 다소 이해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이론에 대한 지식 없이도 본문의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분석심리학 측면의 인성적 가치 덕목인 ‘절제’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즉, 학습자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욕망을 절제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절제’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위와 같은 활동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학습자의 고민과 주체적인 감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나름대로 모두 인성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활동지 1-②>: 모둠 활동을 통해 가치 공유하기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본 후, 모둠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자.

- ① 무사가 여인을 구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옳은 행동인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지하로 내려가서 대적을 퇴치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 무사는 어떠한 점을 더 노력해야 하는가?)

- ① 나는 무사의 행동이 (옳다고 /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_____
_____ 때문이다.
- ② 지하로 내려가서 대적을 퇴치하는 것보다 _____
_____한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사는 _____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활동은 앞서 개개인의 학습자들이 ‘성실·용기·절제’의 덕목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경우 모두 소통을 함으로써 그 가치를 얻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성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여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을 나누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각 개인이 서로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①에서는 주인공의 행위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비판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인성적 가치를 탐구해 보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만약 ‘지혜’¹⁰⁰⁾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학습자의 경우 주인공의 행위가 너무 충동적이라는 점에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라는 것도 인성 덕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답변 또한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②의 경우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 이외에 현명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주인공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 과정에서 인성적 가치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이 발견한 가치 이외의 새로운 인성적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에 소통을 통해 인성을 기르는 활동은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 방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¹⁰¹⁾

<활동지 1-③>: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1. 다음 조건에 따라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보자.

- 주인공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드러나야 한다.
-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에 관해 쓴다.
- 자신의 과거-현재-미래가 다 드러나게 쓴다.
- 평소 자신에게 단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쳐야 할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쓴다.

☞ 무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OO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OOO입니다. 설화 속 당신이 여인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락)

2. 이 활동을 수행하며 느낀 점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100) ‘지혜’라는 덕목은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한다. 정창우, 앞의 책, 105쪽.

101) 교육부, 앞의 책, 133쪽.

마지막으로는 학습자가 설화 속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파악하고 그에게서 얻은 가치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글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작품의 인성적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 과정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는 작품에서 얻은 인성적 가치들을 자신을 표현하는 이야기 속에서 서술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즉, 성찰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활동은 민담형의 서사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한 후에 수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설화의 내용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적 가치를 얻고, 내면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성이 함양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목표 학습과 적용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인성 함양 설화 교수·학습 활동

교과서 ‘목표 학습’에서는 몽골 부랴트족 설화와 우리나라의 <지하국대적퇴치> 설화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학습 목표가 직접적으로 적용된 활동으로, 두 설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보편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제시¹⁰²⁾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활동에서는 두 설화의 공통점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점을 파악하는 활동은 보조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때에는 다음 적용 학습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을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보조 자료 ②>

(1) 목표 학습 활동에서는 두 설화의 ‘공통점’만 살펴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설화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구분	부랴트족의 설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	----------------

102)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과서, 2019, 324쪽.

도적을 물리치려 갈 때 준비물		
도적을 물리친 방법		
배신을 한 인물		
탈출을 위해 한 일		
탈출을 도와준 동물		

(2) 우리나라의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서는 ‘독수리’가 여인을 납치한다. 반면 몽골 부라트족의 설화에서는 ‘독수리’가 주인공의 탈출을 도와준 이로온 동물로 등장한다. ‘독수리’라는 동물의 특성이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위의 보조 자료는 ‘차이점’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외국 문학과 달리 한국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우리만의 의식이 반영된 문학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2)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곧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적 적용 학습에서 동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구연성을 교육하는 학습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대안적 적용 학습을 통해서는 구연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재창작과 구연활동을 함으로써 설화작품의 특성에 대해 교육을 할 것이며, 구연성을 교육하는 부분에서 제시된 ‘신화형’과 ‘전설형’을 통해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할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적 적용 학습을 할 때는 신화형과 전설형의 인성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추가로 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활동지 2-①>: 설화의 서사구조 파악 및 설화에 나타난 인성적 가치 발견하기

(1) (가) 유형의 경우 기자의례(자식이 없는 부녀자가 자식을 낳기 위하여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형상화한 이야기라고 보기도 한다. 원래는 여성이 하는 의례인데 남성이 참여하는 모습이 형상화된 이야기가 구술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의례에 참여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자.

(2) (나) 유형의 경우 본문에 드러나는 민담적 특성과 달리 전설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는지 파악해 보자. 또한 ‘이 작품이 당시 민중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을까?’ 생각해 보자. (대안적 적용 학습에 제시된 서사구조 ⑧-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것)

(1) 남성은 _____ 마음을 가지고 의례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2) 전설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 _____
당시 우리 민중에게 (나) 유형이 지닌 의미: _____

위의 활동지 (1)의 경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화형이 기자의례의 구술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례의 과정을 알려주기 보다는 기자의례를 형상화한 이야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음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의례의 구술상관물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의례의 과정까지는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군신화 교육에서도 보면, 꿈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시련을 겪고 다시 태어난다는 통과의례를 보여주는 것¹⁰³⁾이라고 단순하게 제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지에서도 그 과정까지는 생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신화형의 인성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의례가 행해질 때 남성의 감정에 중점을 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성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활동지를 통하여 학습자는 남성이 의례에 참여할 때, 아내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추론

103) 조정래 외, 『고등 문학』, 해냄에듀, 2019, 217쪽.

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혼자 노력하는 여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참여하였다고 추론해 낼 수도 있다. 이때에는 ‘공감’ 즉, ‘배려’의 덕목을 사고의 과정을 통해 끌어 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하여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마음에서 참여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서도 ‘협동’의 덕목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편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이 인물이 어떠한 덕목을 중시하며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바람직한 인성을 갖는 주인공을 학습자가 자기 안으로 끌어와서 이입해 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에서는 (나) 유형이 전설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그 특성을 찾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앞서 설화의 갈래 특성을 학습한 학습자들은 ‘인물 전설’의 경우 인물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 작품이 전승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인물 전설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학으로나마 우리 민중은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망하였던 심리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민중들은 이러한 설화 내용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심리적으로나마 ‘존중’을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공정하지 못한 중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의’의 인성 덕목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다해줄 것을 표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면 ‘예절’의 인성 덕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설화에는 전승자들의 의식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학습자들은 설화를 전승한 우리 옛 선인들을 이해하고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관계적 차원에서 어떠한 덕목을 중시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관계적 차원에서, 어떠한 덕목을 중시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인성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지 2-②>: (모듬 활동) 설화의 인성적 의미를 고려한 핵심어 쓰기

(가)와 (나) 유형의 설화를 책으로 만든다고 할 때, 책의 앞부분에 들어갈 핵심어를 생각하여 여러 개 써 본 후, 모듬원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여 해시태그(#)104로 작성하여 보자.

(활동 2-①의 의미를 반영하여 쓸 것)

	핵심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핵심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	--	---

(1) 우리 모듬이 정한 (가) 유형의 해시태그(#): _____

예: #남편의 아내 구출 #함께 해결 #협동 ...

(2) 우리 모듬이 정한 (나) 유형의 해시태그(#): _____

예: #최치원 #승리 #중국을 이긴 우리의 영웅 #공정한 사회 추구 ...

위의 활동은 설화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모듬 활동을 통해 각자 얻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최근 학습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의 해시태그(#)를 활용하였다. 이때에는 모듬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이 찾지 못한 인성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듬 구성원이 함께 정한 핵심어를 통해서 설화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화의 의미와 관련된 관계적 차원의 인성 덕목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지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104) 해시태그(hashtag)는 SNS 게시물에 핵심어로 꼬리표를 다는 것이다. 특정 단어, 문구 앞에 해시(#)를 붙여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을 때 쓰는 것이다.

<활동지 2-③>: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 표현하기

1. 2-②에서 발견한 설화의 의미·전승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시한 가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해결 방안)을 써 보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서술할 것)

①대기업의 판매권 갑질,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내용 생략 ...	②국가 간의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누구의 문제일까? 내용 생략 ...	③학교폭력 문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용 생략 ...
---	--	--

나의 입장: _____

예 내가 선택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②이다. 현대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 쓰레기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 유형의 남성 주인공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협동’의 태도가 요구된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

2. 이 활동을 수행하며 느낀 점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면화 글쓰기를 제시하였다. 즉,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끌어와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서술하게 한 것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문,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것을 강조한다.¹⁰⁵⁾ 이에 위 활동은 신문 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신문 자료를 예시로만 들고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이러한 자기 표현하기를 통해 학습자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이 설화를 통해 얻은 인성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마무리에는 소감을 발표하고 교사는 이 활동에 대해 총평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설화의 전승에는 전승자들의 의식이 담겨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 의식에 담긴 인성적 가치를 얻고 내면화함으로써 관계적 차원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105) 교육부, 앞의 책, 132쪽.

V. 결론

이 연구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화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화의 문학적 요소와 인성 함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어과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음을 고찰해 보기 위하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인성 함양 요소를 살펴보았다. 국어과에서도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한 후에는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적합한지를 모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설화 교육의 현실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빈약한 상황임을 파악하여, 설화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성 측면에서의 교육적 의미가 강조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인성 함양의 교육 제재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가 신화적·전설적·민담적 성격을 갖는 것에 유의하여 ‘신화형·전설형·민담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나타나는 인성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신화형에서는 배려·책임·협동의 덕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전설형에서는 예절·존중·정의의 덕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민담형에서는 성실·용기·절제의 덕목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때에는 학습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설화의 의미 즉, 인성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도와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 개인이 얻은 설화의 인성적 가치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모둠 활동과 그 인성적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쓰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결국, 설화의 작품적 특성과 전승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성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자의 인성 함양’

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 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될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하국대적제치>형 설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를 밝힘으로써 설화의 생명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미흡하지만 이 연구를 토대로, 설화가 국어 수업 현장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제재로 제공되어 설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설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교육부, 2015.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1], 교육부, 2015.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9.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과서, 2019.

김진수 외, 『중학교 국어 1-1』, 비상교육, 2018.

김진수 외, 『중학교 국어 1-2』, 비상교육, 2018.

김진수 외, 『중학교 국어 2-1』, 비상교육, 2018.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8.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8.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18.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2-1』,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 『고등 국어』,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2-1』, 천재교육, 2018.

방민호 외, 『고등 문학』, 미래엔, 2019.

신유식 외, 『고등 국어』, 미래엔, 2018.

신유식 외, 『중학교 국어 1-1』, 미래엔, 2018.
 신유식 외, 『중학교 국어 1-2』, 미래엔, 2018.
 신유식 외, 『중학교 국어 2-1』, 미래엔, 2018.
 신유식 외, 『중학교 국어 2-2』, 미래엔, 2018.
 이삼형 외, 『고등 국어』, 지학사, 2018.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1』, 지학사, 2018.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2』, 지학사, 2018.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2-1』, 지학사, 2018.
 이성영 외, 『고등 국어』, 천재교육, 2018.
 이은영 외, 『중학교 국어 1-1』, 동아출판, 2018.
 이은영 외, 『중학교 국어 1-2』, 동아출판, 2018.
 이은영 외, 『중학교 국어 2-1』, 동아출판, 2018.
 정민 외, 『고등 국어』, 해냄에듀, 2018.
 정재찬 외, 『고등 문학』, 지학사, 2019.
 정호웅 외, 『고등 문학』, 천재교육, 2019.
 조정래 외, 『고등 문학』, 해냄에듀, 2019.
 한철우 외, 『고등 문학』, 비상교육, 2019.

3. 단행본

김계현 외,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2009.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8.
 민승기, 『인성이 경쟁력이다』, 나비의활주로, 2016.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손진태,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7.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5.
- ,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2014.
-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5.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부, 1990.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 최운식, 『설화·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 ,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6.
-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문음사, 1998.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7.
- 현주,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9.

4. 학술지

- 강은미,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유형」, 『청람어문교육』 1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97, 137-160쪽.
- 김기창,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연구」, 『국제어문』 18권, 국제어문학회, 1997, 23-65쪽.
- 김라연, 「자기 성찰을 위한 설화 교육의 가능성 탐색 : 분석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3권, 한국독서학회, 2017, 101-124쪽.
- 김혜진, 「설화를 활용한 자기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249-278쪽.
- 박효인,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1권 1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6, 41-94쪽.

- 변숙자·현승환,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신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 10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289-316쪽.
- 서영진, 「국어과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방법 탐색 : 자기 성찰적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국어교육』 142권, 한국어교육학회, 2013, 297-332쪽.
- 신연우,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 『열상고전연구』 1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7-310쪽.
- 신원기, 「설화(說話) 제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4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0, 6-31쪽.
- 이안나, 「한국과 몽골의 물 상징성에 대한 비교 고찰 -구비문학과 민속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권, 한민족문화학회, 2007, 51-88쪽.
- 이인경, 「‘친구·우정’을 향한 설화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 -문헌·구비(口碑) 설화에 나타난 ‘청탁’과 ‘배신’의 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6권, 국문학회, 2017, 255-297쪽.
- 조은상, 「설화를 활용한 자기성찰의 글쓰기 방법 실행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91-336쪽.
- 최숙기, 「인성 교육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 4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3, 205-232쪽.
- 최운식, 「地下國說話의 形態」, 『국어교육』 18권, 한국어교육학회, 1972, 473-483쪽.
- 한혜정, 「자아 성찰과 교수 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 『교육과정연구』 23권 2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117-132쪽.
- 현승환, 「최치원 설화의 형성」, 『백록어문』 11권, 백록어문학회, 1995, 59-84쪽.
- ,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호, 한국구비문학회, 2006, 231-267쪽.
- , 「지하국대적제치계 설화의 성인식과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10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7, 169-193쪽.

5. 학위논문

- 김주혜, 「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을 위한 문학 치료적 국어교육 방안 연구: 황순원 「소나기」, 이청준 「눈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노성미, 「地下國大賊除治說話型 民譚의 構造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성연, 「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임원진, 「중학교 교과서 수록 설화 작품 및 학습 내용 분석 -2009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임유정,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두더지의 혼인>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한미란, 「인성교육을 위한 운동주 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시 치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Abstract>

A Study on Folktale Education
for Cultivating Learners' Character
- Focusing on the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s

Kim So-yeon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olktale education for cultivating adolescent learners' character. Adolescence in which individual identity is formed is a appropriate period for education to cultivate character. Therefore, school educational curriculum has set character cultivation of adolescent learners as an important educational goal, however, specific plans have not been prepared yet. Thus, with the objective of cultivating learners' character through the folktale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class, this study specified folktale education plans focusing on the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haracter cultivation through folktale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terary elements of folktales and character cultivation was examined. And for character cultivation of

learners through the Korean language subject, the components of character cultivation were analyzed in the 2015 rev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urriculum. Also, it was discussed in which area it is appropriate to teach folktales to cultivate character in the Korean language class. Identifying that there were few folktales in the current textbooks, the study decided that it is effective to highligh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folktales on character aspect so that the folktales could b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That is, if folktales that put emphasis on the meaning of character were contained in the textbooks, it was judged that character cultivation through folktale education would naturally take place,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folktale education for cultivating learners' character.

Next, the various character-educational values of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s, the educational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folktales were classified as 'mythical, legendary, and folk' types, and each of their character-educational values were explained. Moreover, since character includes both personal and relational dimensions,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educational values of folktales by dividing these two domains.

Finally, education plans of folktales for learners' character cultivation were proposed, focusing on the character-educational values of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s. The contents of learning were designed to cultivate character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learning objectives of folktale education. The activity sheets were organized to enable learners to internalize through discovering the personal values contained in the folktale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e actual responses of learners are unknown because this study has not yet applied in an actual classroom.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laims the utility value of folktales as character cultivation and provides

specific education plans for folktales to be realized in school curriculum.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se of folktales as educational materials and activation of folktale education for character cultivation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Key words: character cultivation, folktale education,

<Eliminating the monster of underground nation> type folktale,
the relationship between folktale and character cultivation